

여성의 성적 좌절 · 분열을 통해 허물어지는 현대성 고발... 극단 성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 윌리엄스 작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1947년 12월 3일에 뉴욕의 에텔 베리모어 극장에서 이레느 M. 켈즈닉에 의해 초연되었으며, 그해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여성의 성적 좌절과 정신분열을 그린 작품으로 원숙하고 개성 있는 배우들—양금석, 강신구, 채용병, 진현아 등—의 연기를 통해 고전적 현대극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연극계 원로이자 극단 성좌 대표인 권오일 선생의 연극인생 40주년을 기념하여 40여 년 동안 연극인생을 함께 걸어온 김길호, 오현경, 권성덕, 전성환, 전무송, 이호재, 박 웅, 오영수, 이창희, 한상혁, 정동환, 박팔영 등 많은 연극인들의 우정 출연으로 한층 더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욕망을 타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묘지’라는 전차로 갈아타서 ‘극락’이라는 곳까지 간다.

몰락한 남부 귀족 노처녀 블랑쉬는 펄럭거리는 옷차림을 휘어잡은 채 후텁지근한 뉴올리언스의 동생 짐을 찾아간다. ‘블랑쉬 뒤부아’라며 우아하게 자기 이름을 내심 자랑스러워하는 그녀.

동생을 만나기 위해 이웃이 알려준 블랑장에 가서 처음으로 마주친 것은 우아한 그녀의 생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듯한 노동자들의 유희와 그 속에서 깔깔대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 스텔라.

그토록 교양 운운하며 곱게 자란 스텔라가 마치 불같은 성격의 스텔리와 좋아 죽겠다고 지내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지만 몰래 스텔라의 상의 벗은 몸매를 커튼 뒤에서 훑쳐보는 블랑쉬.

허영과 사치로 푹푹 멍친 가식 그 자체인 블랑쉬와 꾸밈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야성 그 자체인 스텔라의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결국 블랑쉬는 가식의 망상 속을 헤매다 정신과 의사의 팔짱을 끼고 “저는 언제나 낮은분의 친절에 의지하여 살아왔어요”라며 정신병원으로 향한다.

*공연기간 : 2002년 7월 6~17일

*공연시간 : 평일 7시 반 / 토·일·공휴일 4시 반, 7시 반 (첫날 낮 공연 없음)

*공연장소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공연문의 : 02-762-0010 / www.moaplan.com

금요일에 만나요

- 유중호 교수의 금요일의 문학이야기

본원에서는 2002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유중호 교수의 금요일의 문학이야기』 제2기 강좌를 시작한다.

2002년 4월부터 유중호 교수의 진행을 통해 우리 문학의 다양한 양상을 소개하는 집중강좌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시작된 ‘금요일의 문학이야기’.

지난 제1기 강좌에서 김주영, 김원일, 오정희, 정현중, 김화영, 은희경, 권지예, 김치수, 조남현, 김우창 등 우리 문단의 대표적 작가와 평론가들을 이야기 손님으로 초빙하여 ‘성장소설의 매력’ ‘소설과 방랑적 상상력’ ‘소설과 사랑의 변모’ ‘문학과 음악’ 등의 주제를 통해 우리 문학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였다. 또한 김소월, 정지용, 채만식 등 우리 근대문학 선구자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작가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문학의 깊이를 다져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7월부터 시작될 제2기 강좌에서는 박완서, 이호철, 홍기삼, 정현기, 김사인, 이광호, 최윤, 김승희, 우찬제, 나희덕, 백지연 등 우리 문단을 이끌고 있는 작가·평론가들을 이야기 손님으로 초빙하여 문학을 보는 다양한 화두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요일의 문학이야기’는 본원 홈페이지(www.kcaf.or.kr)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본원 문학미술팀(02-760-4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해 본다.

순수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그 조우와 성장을 위하여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공동 세미나

문화산업 분야가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 본원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공동 주최로 ‘순수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그 조우와 성장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2002년 6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순수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상호간 소통의 벽을 허물고 두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였다. 각 주제별로 관련업계 CEO 및 전문가들이 각기 자기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집중 논의하였다.

본원의 김정옥 원장은 인사말에서 “문화와 예술은 아마도 국력을 기증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일 것”이고, “문화와 예술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각국은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인식하고 이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서병문 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은 기반을 이루는 인력, 기술, 창의성, 그리고 소재 등이 튼튼하게 갖추어졌을 때 경쟁력 또한 강화될 수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순수문화예술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소중한 기반이며 자원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뉘 진행됐다.

제1부는 ‘문화콘텐츠산업계의 문화예술인력 수요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를 김원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에 ‘문화콘텐츠산업의 문화예술인력 수요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박세형 교수는 “문화콘텐츠산업이라고 부르는 이 흐름이 기존 문화예술과 조심스런 대화와 접근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며 이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를 거론하였다. “인력 수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질 및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하면서 이는 “결국 구조적 문제”라 했다.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시나리오의 중요성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범식 시나리오 작가는 “시나리오가 없이는 콘텐츠도 없다”라는 명제를 거론하며 문화산업 콘텐츠에서의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산업 분야의 콘텐츠 전문 시나리오 작가들의 실태를 통해 콘텐츠 전문 시나리오 작가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콘텐츠 시나리오의뱅크화, 문화산업 콘텐츠 아카데미의 설립, 또한 대학교육의 순수예술학과와의 접목을

제시하였다. 발제에 이은 정형모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조정희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은병수 Vium 대표, 고경일 상명대학교 만화영상학과 교수, 정진수 연극연출가의 토론이 있었다.

이들의 발제와 토론은 하나같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순수예술을 그 기반으로 콘텐츠와의 결합이 불가피하며, 이에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2부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과 대학의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최혜실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대학의 문화콘텐츠 교과과정과 산업현장 적응력 증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이용배 교수는 애니메이션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비한 국내 대학의 현실을 얘기하고, 해외 미술대학의 예를 들기도 하면서 문화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제작 중심의 단기 코스가 가능한 교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대학의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연계 강화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발제를 한 김재웅 교수는 “대학의 문화콘텐츠산업 인력 양성은 산업과의 연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발제에 이어 양현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최영섭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유리 이화여대 실용음악과 교수, 김영재 동우애니메이션 부사장, 이상윤 매체예술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점차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산업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짙어지면서 학생들 또한 애니메이션이나 영상매체와 같은 콘텐츠산업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알맞은 예술 분야로서의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1, 2부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본 문화산업은 우선 기본적인 바탕과 인재 양성의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순수예술을 기초에 둔 콘텐츠와의 만남이라면 문화산업의 보다 향상된 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산업현장과 대학 등 교육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나은 인재를 양성하지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서로의 힘을 모을 때이다. 문화산업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며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순수예술과 예술산업, 모두가 지향하는 문화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